“설 연휴 스포츠와 함께 즐기세요”

군산서 모래판 최강자 가리는 장사씨름대회
PGA 휴매너챌린지 대회에 한국계 8명 출전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박주영 첫 맞대결 준비

〈박지성〉

〈이슬기〉

임진년(壬辰年) 설 연휴(21~24일)에 스포츠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빅 이벤트’가 국내외에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군산에서는 ‘모래판 최강자’를 가리는 장사씨름대회가 열린다.

올스타 휴식기를 앞둔 프로농구에서는 ‘중위권 4인방’ 전자랜드·모비스·SK·LG의 승수 쌓기 경쟁이 벌어진다. 프로배구 V 리그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 남녀부 1, 2위 팀 간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코리안 브라더스’는 올 시즌 미국 본토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동원(선덜랜드) 등 유럽 프로축구 무대를 누비는 태극 전사들도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씨름**=올 시즌을 여는 설날 장사씨름대회가 21일부터 나흘간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이 출전해 21일 태백장사(80㎏ 이하), 22일 금강장사(90㎏ 이하), 23일 한라장사(105㎏ 이하), 24일 백두장사(160㎏ 이하)를 차례로 가린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의 백두장사 결정전은 이슬기(현대삼호중공업), 정경진(창원시청), 장성복(동작구청)의 3파전으로 관심을 끈다.

이슬기는 작년 11월 천하장사대회에서 우승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정경진과 장성복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골프**=2012시즌을 하와이에서 시작한 PGA 투어는 1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PGA웨스트와 라킨타 골프장에서 시즌 세 번째인 휴매너 챌린지 대회를 연다.

소니오픈과 마찬가지로 8명의 한국계 선수가 출전하지만 멤버가 조금 바뀌었다.

최경주(SK텔레콤)와 재미교포 존 허가 쉬는 대신 위창수(테일러메이드)와 재미교포 앤서니 김(나이키골프)이 올 시즌 첫 출전한다. 또 배상문(캘러웨이) 외에 강성훈(신한금융그룹), 노승열(타이틀리스트), 이진명(캘러웨이), 리처드 리, 나상욱(타이틀리스트)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축구**=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양박(朴)’ 박지성과 박주영(아스널)은 23일 오전 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정규리그 첫 맞대결을 준비한다.

박주영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 ‘양박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아스널이 최근 임대선수로 영입한 티에리 앙리가 그라운드에서 박지성과 대결할지가 팬들의 관심을 끈다.

‘리틀 지(ji)’ 지동원은 21일 자정 스완지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시즌 3호골에 도전한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활약하는 기성용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 세인트미렌과의 홈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은 21일, 손흥민은 22일에 각각 쾰른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노린다.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은 21일 오후 6시30분 노르웨이를 상대로 2012년 킹스컵 3차전 최종전을 벌인다.

◇**농구**=하이라이트는 22일 전자랜드와 모비스의 대결이다.

7위 SK의 추격을 받고 있는 모비스는 5위 전자랜드와의 격차를 줄여놔야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

특히 모비스는 24일 선두 동부와 대결을 앞두고 있어 전자랜드전 승리가 절실하다.

모비스를 바짝 쫓는 SK는 21일 ‘난적’ KGC인삼공사와 만난다.

◇**배구**=남자부 1위 삼성화재와 2위 대한항공이 24일 오후 2시 올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을 벌인다. 두 팀은 올 시즌 세 차례 맞붙어 2승1패로 삼성화재가 앞섰지만 세 번 모두 5세트까지 혈투가 이어졌다.

여자부 1위 KGC인삼공사와 2위 흥국생명도 24일 같은 장소에서 격돌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인삼공사가 2승1패로 우위다.

◇**동계유스올림픽**=한국 선수단은 대회 막바지인 21~22일 쇼트트랙, 알파인스키, 썰매 등의 종목에서 마지막 메달 레이스를 벌인다.

21일 저녁에는 남자 알파인스키 회전 경기와 스켈레톤 결선이 열리고, 22일 새벽에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혼합팀 예선과 결선을 치른다.

한국 선수단은 22일 저녁 봅슬레이 2인승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역전골 세러모니

바르셀로나의 에릭 아비달(오른쪽)이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1-2012 국왕컵 경기에서 역전골을 터트린 뒤 세러모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7일 ‘플레이 볼’

3월17일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시작된다.

KIA는 17일 문학구장에서 SK와 첫 실전 경기를 갖고 선수단 기량을 점검한다.

잠실에서는 LG와 삼성이 만나고, 한화와 넥센은 청주에서 대결을 갖는다. 롯데와 두산은 부산에서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시범경기는 팀간 2차전, 팀당 14경기로 총 56경기가 열리며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1시다.

더블헤더가 열리지 않으며 지난해와 달리 승부 치기도 없다. 대신 연장 10회까지 승패를 결정하지 못하면 무승부로 처리한다.

한편 구장 보수공사가 열리면서 한화의 홈 경기는 대전이 아닌 청주에서 치러진다.

천연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무등경기장에서는 4경기만 진행된다. 27·28일 LG와의 경기가 열리고, 3월31과 4월1일 한화와 시범경기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축구 FIFA 랭킹 30위… 두 단계 상승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30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18일 FIFA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월 랭킹에서 총점(랭킹 포인트) 752점을 얻어 지난달 32위보다 두 계단 오른 3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29위로 20위권을 회복했지만 10월 31위, 11월과 12월에는 32위로 계속 내려앉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지난달과 같은 19위로 가장 높았고 호주가 두 계단 오른 21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최종전 상대인 쿠웨이트는 95위로 네 계단 상승했다.

스페인이 1564점으로 변함없이 1위 자리를 지켰고 네덜란드(1365점)가 2위, 독일(1345점)이 3위로 뒤쫓았다. /연합뉴스

사이클 최우수 선수 조호성·나아름 선정

조호성(서울시청)과 나아름(나주시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최고의 기량을 펼친 사이클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사이클연맹은 19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조호성·나아름에게 2011년 남녀부 최우수선수상을 줬다.

최우수선수상 영예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한 해 동안 최고 성적을 올린 선수에게 돌아간다.

조호성은 지난해 2월 영국 맨체스터 4차 트랙월드컵과 11월 카자흐스탄 1차 트랙월드컵 옴니엄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고, 콜롬비아 2차 대회까지 중간순위 1위에 올라섰다.

나아름은 카자흐스탄 월드컵에서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클 대상은 윤상현 전 한국실업사이클연맹 회장이 받았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사임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회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이클연맹이 정식 가맹단체로 승인받았다. /연합뉴스